

原油導入先다변화지원제도 개선 油價인상요인 基金등으로 흡수

손태환대통령은 지난 2월 11일 상오 청와대에서 崔昌洛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崔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단기적으로 국제원유가격은 OPEC의 감산합의의 이행여부에 달렸으나, 86년의 低油價때의 과잉비축재고 3~4억배럴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油價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석유안정공급기반의 확충과 에너지이용효율의 제고를 위한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崔장관은 원유의 안정공급을 위해 원유도입을 탄력성있게 운용, OPEC의 고정유가제 실시에 따라 장기계약과 현물시장의 적정도입비율을 설정·운영하고, OPEC 고정유가제 실시가 흔들릴 때에 대비하여 市況에 대응한 정유사의 低價구매도입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당초 60%로 잡았던 中東의존도 목표를 여건변화에 따라 60~70% 범위내에서 신축성있게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中東지역 도입기준으로 추가운송비와 금융비를 보전해 주고 있는 현행 원유도입선 다변화지원제도를 개선, 금융비지원을 폐지하고, 운송비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崔장관은 앞으로의 국내油價관리는 석유사업기금 징수액과 관세를 인하하여 油價인상요인을 흡수하고, 국제원유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에는 기금확보재원으로 현재의 가격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崔장관은 그 대응방안으로서 ①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18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현재 배럴당 8달러69센트씩 징수하고 있는 기금규모를 50센트로 내리고, ② 국제유가가 다시 21달러 수준으로 오를 경우, 관세를 현재의 24.5%에서 1%로 내리며, ③ 국제유가가 21달러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에는 이미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금년에는 국내유가를 올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崔장관은 또한 경질유수요증가추세에 대비하여 내년 2월 완공목표로 3만4천B/D 규모의 重質油분해시설을 건설중에 있으며, 또 올해에 3만B/D 규모의 重質油분해시설 1기를 추가로 착공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90년 이후 주요도시에 유허량량 1%의 低硫黃 B-C油를 공급한다는 목표아래 올해에 탈황시설 2기(5만B/D)를 착공하고, 다시 오는 89년 이후에 2기(5만B/D)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崔장관은 또한 석유통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주유소기능을 다각화하여 타이어, 밧데리 등 간이정비업을 겸업하도록 유도하고, 주유소허가요건을 강화하여 주유소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발원유 20%까지 확대

해외유전개발 적극 참여

정부는 석유의 자력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성있는 해외유전개발에 적극 참여, 오는 2000년 까지 국내소요원유의 20%까지 개발원유를 도입할 계획이다.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탐사광구진출과 병행하여 이미 개발된 유전을 확보키로 하고, 소규모 지분참여로 외국석유회사와 공동참여하거나 국내기업간의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진출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미 생산중인 유전에 20% 범위안에서 지분참여하고, 우선 올해안에 동남아시아와 北海에서 1~2개 유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외유전개발현황을 보면, 현재 北 예멘 마리브유전(생산규모 10만B/D) 생산시설이 완공되었고, 인도네시아 서미두라 가스田(생산규모 4천만ft³/D) 개발계획이 추진중이며, 인도네시아 아당광구와 수단, 나일 광구 탐사가 계속되고 있다.

석유사용비중 46.8%로 감소

發電源 석유의존도는 21.8%

정부의 탈석유정책추진에 따라 지난 6년간 석유사용비중은 14.5%포인트, 發電源의 석유의존도는 무려 56.9%포인트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석유사용비중은 80년의 61.3%에서 86년에는 46.8%로 감소되었고, 發電

電源의 석유의존도는 80년의 78.7%에서 86년에는 21.8%로 감소한 반면, 원자력발전비중은 80년의 9.3%에서 86년에는 43.8%로 늘어났다.

수도권 일부지역

LNG 공급개시

수도권지역의 도시가스 원료가 LPG 및 나프타에서 LNG (액화천연가스)로 대체, 지난 2월 4일 구로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4일 LNG 공급시설과 안전검사를 끝낸 강남도시가스에 LNG공급을 승인하는 등 시내 5개 도시가스공급회사의 공급일정을 확정했다.

LNG는 메탄을 주성분으로 한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 6백분의 1로 압축시킨 무색투명한 초저온 액화가스로 기존도시가스보다 가벼워 공중확산이 잘돼 화재위험이 적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해 10월말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5만7천톤의 LNG를 平澤인수기지에 도입, 지난 11월 20일부터 平澤화력발전소, 12월 9일부터 仁川화력발전소의 발전용 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자유황유공급지역 확대

신축주택에 유류·가스사용 유도

환경청은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올해에 1백60만톤의 LNG (액화천연가스)를 도입, 수도권도심 대형건물의 냉난방연료로 공급하고 자유황유(유황함량 1.6%)의 공급지역을 현재 19개시 10개군에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86년 원유도입량 16% 증가 도입비용은 20억달러 감소

지난 해 우리나라의 총원유도입량은 2억3천만배럴로 물량은 85년도보다 16% 증가했으나, 도입비용은 국제원유가격하락에 힘입어 85년도보다 20억달러가 준 35억달러로 나타났다.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도입복합단가(FOB기준)가 배럴당 14달러17센트로 85년의 26달러67센트보다 12달러50센트가 하락함으로써 지난해의 원유도입금액(C&F 기준)은 34억7천4백만달러를 기록, 85년의 55억달러보다 20억2천6백만달러가 감소했다.

이와같은 원유도입금액의 절감은 국제수지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국내유가를 22.8% 인하함으로써 물가안정에도 크게 공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도입실적은 中東지역도입비중이 85년 57%에서 60.6%로 증가했는데, 이는 86년초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네트백계약과 비축용 원유구입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동남아시아 도입비중은 85년 24.2%에서 22.2%로, 中南美 도입비중은 85년 12.8%에서 11.1%로 감소했으며, 아프리카지역 도입비중은 85년 6%에서 6.1%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도입형태별로 보면, 공식가격계약은 85년의 41.6%에서 16.3%로 대폭 감소한 반면, 시장연동가격도입구성비는 85년의 58.4%에서 83.7%로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현물시장 구입비율은 85년의 30.9%에서 40.1%로 대폭 증가했다.

환경청은 또한 아황산가스 생성요인의 60%를 차지하는 연탄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 40평 이상의 신축단독주택, 2백평 이상의 신축공동주택 등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유류나 가스사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2월 나프타공급가격 인상

工場渡 17.59%...ℓ당 99원12전

대한석유협회는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의 국제가격이 상승

함에 따라 지난 2월 1일 국내나프타 공급가격을 17.59% 인상,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내나프타 공급가격은 공장도가격기준으로 지난 1월의 ℓ당 84원29전에서 99원12전으로 14원83전이 오르고, 稅포함가격기준으로는 1월의 ℓ당 92원72전에서 109원3전으로 16원31전이 올랐다.

지난 1월중 국제나프타 평균가격은 日本 C&F(운임포함조건) 가격으로 톤당 1백62달러53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의 1백37

달러36센트보다 25달러17센트가 오른 것이다.

현재 국내나프타공급가격은 국제 가격에 연동, 매달 日本 C&F 가격의 전월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내 나프타가격 변동추이

(단위 : 원 / ℓ · \$ / t)

	국내가격(稅포함)	조정(%)	국제평균가격(日本C&F기준)
1985. 11	171.14	0.15	252.65
12	175.46	2.53	242.56
1986. 1	168.42	▲ 4.01	210.50
2	146.10	▲ 13.25	149.91
3	103.58	▲ 29.11	102.34
4	70.54	▲ 31.89	114.62
5	79.11	12.15	142.77
6	98.73	24.79	126.55
7	87.63	▲ 11.24	91.40
8	65.21	▲ 25.58	125.23
9	86.28	32.32	137.58
10	94.46	9.47	134.58
11	91.95	▲ 2.66	135.30
12	91.86	▲ 0.10	137.36
1987. 1	92.72	0.93	162.53
2	109.03	17.59	-

정유업 자기자본지도비율 낮춰
26.6%에서 24.9%로

은행감독원은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규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을 대폭 재조정했다.

은행감독원은 이번 조정에서 산업용 기초화학, 타이어 및 튜브, 가정용전기기구 등 55개 업종의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석유정제, 비철금속, 시계, 소매업등 33개 업종은 하향조정했다.

석유정제업은 86년의 26.6%에서 87년에는 24.9%로 낮췄다.

은행감독원은 최근 3년간(83~85

년)의 기업재무구조를 반영, 자기자본비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油公, 기술도입계약 체결
蔚山에틸렌공장 건설

油公은 지난 1월 30일 美國 켈로그社와 에틸렌공장(연산 25만톤 규모) 건설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다.

油公이 총 2천 5백억원을 들여 蔚山에 짓는 이 공장은 오는 89년 8월에 준공된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油公의 에틸렌생산은 연간 40만 5천톤으로 늘고, 연간 1억 4천만달러의 수입대체효

과를 거두게 된다.

한편 켈로그社는 이 공장의 핵심부분인 가열로의 기본설계를, 상세설계 및 시공은 油公과 鮮京建設이 각각 맡는다.

油公, 팩시밀리 1대 증설

784-8004(신설), 6075(기존)

油公은 팩시밀리 사용량 증가에 따라 지난 1월 26일부로 본사 텔렉스실에 팩시밀리 1대를 증설 개통하였다.

이로써 油公은 2대의 팩시밀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번호는 다음과 같다.

- (02) 784-8004(신설)
- (02) 784-6075(기존)

油公 김원태사우 박사학위취득
KAIST에서 고분자화학분야로

油公의 김원태사우는 인력개발 계획에 따라 지난 84년 3월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파견되어 고분자화학분야 박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월 20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위를 마치고 금년 1월 1일 회사에 복직할 김원태사우는 기술개발부 소속으로 현재 화학사업추진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油公공장, 업무보고회 가져

86년도 실적 및 87년도 계획보고

油公 공장은 지난 2월 3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윤대욱 공장장, 최동일 생산·공무담당 부공장장, 양영모 관리·노무담당 부공장장 등 임원진과

각 부 실장등 관계간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회를 갖고 공장 각 부서의 86년도 업무실적과 87년도 업무계획을 들었다.

이에 앞서 공장에서는 또한 1월 21일 같은 장소에서 윤대옥 공장장을 비롯한 공장 전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경영개선효과 보고회가 개최되었다. 본사 사장실 주관으로 실시된 이 보고회에서는 지난 81년부터 85년까지 5년간의 당사 기업경영개선 실적과 장기 경영목표에 따른 회사의 안정과 성장에 대한 정적 요소별 분석내용이 보고되어 참석자들로 하여금 그간의 회사발전 모습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油公공장, '86우수부서·사원표창
안전목표일 달성부서도 시상

油公 공장은 지난 1월 4일 후생관 회의실에서 86년도 우수부서및 우수사원에 대한 표창식을 가졌다.

이날 우수부서 및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어 윤대옥 공장장으로부터 표창패와 부상을 받은 부서와 사원은 다음과 같다.

- 우수부서
- ▲관리부 회계과, ▲석유화학부 올레핀과, ▲운영부 육상송유과, ▲공무부 장치검사과

- 우수사원
- ▲윤성중(노무부 노무과)
- ▲이용남(실험실 실험 1과)
- ▲전홍식(전산실 전산과)

또한 이날 이 자리에서는 무사고 안전일을 달성한 운영부(250일 2차 : 86. 4. 24~86. 12. 29)와 실험실(600일 1차 : 85. 5. 14~87. 1.

3)에 대해서도 상패와 상금등 시상이 있었다.

油公공장, 탁구동우회천선대회
최강자에 조수웅사우

油公 공장 탁구동우회는 지난 1월 23일 울산시내 수암탁구장에서 제8회 사내 천선탁구대회를 갖고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다졌다.

예선리그 및 본선토너먼트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처녀 출전한 조수웅사우는 지난 대회 우승자 김동원사우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 각조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 우 승
- ▲S 조 : 서상비(관리부)
- ▲A 조 : 조수웅(관리부)
- ▲B 조 : 안을학(노무부)
- ▲노장조 : 김성도(석유정제부)
- ▲C 조 : 심은숙(전산제어실)
- 준우승
- ▲S 조 : 윤기관(석유화학생산부)
- ▲A 조 : 김동원(전산제어실)
- ▲B 조 : 이상홍(관리부)
- ▲노장조 : 윤승만(전산제어실)

湖油, BTX공장건설 추진
연산 40만톤 규모

湖南精油는 美國 UOP社와 기술 제휴로 BTX(방향족) 생산에 나선다.

이로써 湖油는 현재 추진중인 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생산 등을 포함하여 油化사업에 본격 진출하게 됐다.

총 1천 7 백억원을 들여 오는 89년까지 완공할 이 공장의 연간 생산규모는 약 40만톤이다. 이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5 천만달러의 수입대

체효과를 가져오고 BTX의 자급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된다.

BTX수요는 오는 90년 1백46만톤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油公과 湖南에틸렌이 연산 82만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

湖油, 흑한속 공장정비작업완료
연인원 2,120명투입, 3 교대로

湖油는 지난 1월 6일부터 25일까지 제1공정지역 및 유허회수 공정의 칼럼, 반응탑, 열교환기 등의 장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실시하였다.

연인원 2,120여명이 투입된 이번 정비작업기간 중에는 살을 에이는 흑한 속에서 악조건을 무릅쓰고 실시되었는데 특히 하이드로본 차이지가 열로 튜브교체작업시에는 3조 3교대로 철야작업을 실시하는 등 예정된 기간내에 무사히 정비작업을 마쳤다.

湖油, 문서정리 현황 점검
최우수부서에 자재부 선정

湖油 문서검열위원회(위원장: 구진회 이사)는 지난 1월20일부터 3일간 본사 31개 부서를 대상으로 문서정리 운동의 결과에 대한 현장확인 을 실시하였다.

점수제로 평가된 이번 현장확인에서 자재부가 최우수부서로 밝혀졌다.

채점에 참가한 문서검열 위원들은 한결같이 지난해 6월부터 계속 실시되어온 문서정리의 결과 사무실 곳곳에 쌓여있던 문서들이 모두 정리되었고, 문서보관함에 들어 있었던 문서들은 약 30%가 제거되는등 그동안 여러 사원들의 노력의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문서정리 현장확인인 앞으로도 계속되어 사무환경 선진화의 큰 분수령이 될 신사옥 이전 직전에 1회, 이전 후에 1회 등 금년 안으로 2회 더 실시될 예정이며, 불필요한 서류들은 일체 신사옥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앞으로 문서의 축소화에 큰 역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문서정리 현장확인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부서에 대해서는 사장을 대신하여 구진회 이사가 시상을 하였다.

湖油공장, 제3기 일본어교육개강 27명 대상, 6개월과정

湖油는 국제화시대에 대비, 사원업무능력의 지속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2월 3일 제3기 공장 일본어 교육과정을 개강하였다.

업무수행상 일본어 사용이 필요한 사원중 해당부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적으로 선발한 27명의 교육생들은 금년 7월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교육을 받게 된다.

湖油공장, 동절기 단체헌혈

지난 6년간 90여명 참여

湖油 공장은 지난 1월 26일 대한적십자사 전남지사 주관으로 실시된 사랑의 헌혈사업에 다수의 사우가 참여하여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봉사정신을 실천하였다.

지난 8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본 헌혈운동에는 그동안 6회에 걸쳐 90여명의 사우가 참여하였다.

湖油, 87년도 노조대의원 선거

대의원 31명 선출

湖油 1987년도 노동조합 대의원선

거가 지난 1월 23일 인천지부에 이어 1월 26일 공장에서도 실시되어 평균 84%의 투표율을 보였다. 27개 선거구에서 총31명의 대의원이 당선되었다.

崔珏圭 京仁에너지사장 韓火 3개계열사 총괄회장에

한국화약그룹은 지난 1월 26일 그룹의 京仁에너지, 韓洋化學, 韓國프라스틱등 3개 석유 및 석유화학계열사를 총괄하는 회장으로 崔珏圭 京仁에너지 사장을 선임했다.

京仁, 공장새마을운동 강연회

외부강사 및 새마을지도자 초빙

京仁에너지는 지난 2월11일 사내 복지관 교육실에서 인천시 북구 관내 50여개 기업체 공장 새마을운동 지도자와 각 부의 분임조 리더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새마을운동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사인 정용수교수(인하대 경영학 박사)는 급변하는 기업형태와 근로자의 의식구조를 파헤쳐 새로운 경각심을 갖게 하였다.

급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京仁, 등산동우회 신춘등반

강원도 배덕산에서

京仁에너지 본사 등산동우회는 지난 2월15일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배덕산으로 87년도 신춘등반을 다녀왔다. 배덕산은 해발 1,350m로 늦은 봄까지 적설량이 많아 산악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며, 산 풍족과 굽어진 평창강의 아계는 수려한 계곡미를 지니 여기를 찾은 동우회원들의 감탄을 자아내었다.

京仁, 日語 중급과정 개강

초급과정에서 호응 좋아

京仁에너지는 사내직원의 실력배양 및 지속적인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12주간 과정급 이상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의 효과가 좋아 2월부터 중급과정을 실시하고 5월부터 전사원을 대상으로 초급, 중급, 고

雙龍, 근로복지기금 3억원출연

학자금 지급등 사원복지향상 도모

雙龍精油는 사원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 안정적인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연말 사내 근로복지 기금을 3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난해 5월 15일 1억1천5백만원을 출연하여

설립된 쌍용정유 근로복지기금은 지난해 12월 1억8천5백만원의 출연 완료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원복지 사업의 확충이 가능케 됐다. 지난해 1/4분기까지 중고교와 대학에 재학중인 사원자녀 학자금의 경우 90%를 회사에서 직접 지원해온 쌍용정유는 새 제도에 의해 근로복지기금을 3억원으로 늘리게 됨에 따라 88년말까지 완벽하게 학자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게된 것은 물론, 자녀 학자금을 받는 사원들에게는 학자금 수령액이 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다.

雙龍, 그룹신입사원 공장견학 175명에 일체감 심어줘

雙龍그룹의 87년도 대졸공채 신입사원 175명이 1월 21일 울산공장을 방문, 견학했다. 그룹 종합조정실 홍재영상무의 인솔로 이날 오전11시에 온산공장에 도착한 이들 일행은 공장장의 환영인사에 이어 현황정취와 현장견학을 마치고 공장사우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나누다음 견학장소인 쌍용양회 동해공장을 향해 떠났다.

이번 방문단 1진 소속회사는 쌍용정유 38명, 쌍용양회 78명, 쌍용중공업 37명, 동아자동차 22명 등이다.

雙龍, 제100항차 원유도입 80년 1항차이후 7년만에

雙龍精油는 1월 14일 제 100항차 원유도입을 기록했다. 이날 '사이프러스' 선적의 대형유조선 '사나'(SANNA)호가 이란 경질원유 180여만배럴을 싣고 입항함에 따라, 지난 80년 12월 10일 이란산 원유108

만9천여배럴을 싣고온 스페인 선적의 '멜리아'(Melilla)호의 제1항차 이후 약7년만에 100항차를 기록하게 되었다.

極東공장, 업무계획 발표대회 입상부서에 포상금 수여

極東石油 부산공장은 지난 1월27일 공장 회의실에서 부서별 1986 업무실적 및 1987 업무계획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17개 부서가 참가한 이날 주요발표내용은 업무개선, 원가절감, 물자 및 에너지절약, 품질관리 및 당해부서 중요업무에 관한 것이었으며, 심사결과 입상부서에겐 포상금이 수여되었다.

- 입상부서는 아래와 같다.
- 1 등: 생산2과
 - 2 등: 공무과, 동력원동과(공동)
 - 3 등: 재고관리과, 생산1과(공동)

極東공장 예비군 “秀” 1986 정기감사에서 판정

極東石油 예비군중대(부산공장)는

1986 예비군 정기감사결과 “수”부대로 판정받았다.

부산·경남지역 직장예비군부대중 “수” 판정을 받은 부대는 총7개 부대로서 최우수판정을 받은 부대는 87년도 정기감사가 면제되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極東, 사내 바둑대회 가져 최강자에 신원부 이사

極東石油 바둑부는 丁卯年을 맞아 지난 1월 24일 사내바둑대회를 개최, 愛棋家들의 결속을 다지고 그동안 닦은 실력을 겨루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총 52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린 이날 대회에서 각조 우승자는 아래와 같다.

- ▲A조(1급이상) 우승: 신원부 이사
- ▲B조(2~4급) 우승: 조동운 사원
- ▲C조(5~8급) 우승: 위정환 사원

〈석유협회 人事〉

- 퇴직
- ▲ 任益彬(조사역) (1. 31일자)

『회원사·정부에 보탬되도록 최선 다할터』 黃鎭升부회장 취임식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2월 9일 하오 협회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黃鎭升부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黃부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석유산업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협회와 회원사, 그리고 동자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협회 전직원도 성심성의껏 봉사하는 자세와 엄정한 기강질서를 확립하며, 인화단결과 상호협조로써 협회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黃부회장은 회장단의 개편을 맞아 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며,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